

## 표지화조문금(縹地花鳥紋錦)의 가치와 활용

- 백제문화권 스토리텔러복을 중심으로 -

라 선 정<sup>†</sup>

공주대학교 의류상품학과 조교수<sup>†</sup>

### The value and utilization of Pyojihwajomoonkeum (silk fabric with lingering flowers and bird patterns)

- Focusing on Baekje cultural area storyteller clothing -

Sun-Jung Ra<sup>†</sup>

Assistant Prof., Dept. of Fashion Design and Merchandising, Kongju National University<sup>†</sup>

(2021. 5. 17 접수; 2021. 5. 20 수정; 2021. 6. 18 채택)

### Abstract

Baekje patterned Pyojihwajomoonkeum is a fabric that expresses Baekje's unique culture possessed by Shosoin(正倉院) in Japan. Reflecting the close exchange relationship with the Chinese Southern Dynasties, these patterns are suitable as good examples to grasp the forms and atmosphere that prevailed during that era. Through the analysis of many pieces, it has been identified that the patterns were unique to Baekje. With an aim to ascertain and restore the original form of Pyojihwajomoonkeum, designs were proposed utilizing Pyojihwajomoonkeum as a form of storyteller clothing that fits the modern sense. Fabric was designed by continuously repeating the colors and patterns of Pyojihwajomoonkeum upward, downward, leftward, and rightward and woven with a Jacquard loom. The fabric woven was dried, processed, and used to make a total of four pieces of storyteller clothing consisting of men's wear, comprising a jeogori and pants, and women's wear comprising a jeogori and skirt. The top jacket was long enough that the hip is covered. It has wide sleeves and linear decorations were attached to the collar, lower edge of sleeve, and bottom hem. The pants are wide legged, the top is wide, and the bottom hem had linear decorations attached. What is the most important when using the original form of a traditional culture is processing the raw materials following cultural traditions to create value. Costumes of an era are the combination of individual elements and represent the culture of that era. Therefore, a consideration of the origin and prevailing ideas of the era must be considered. It is anticipated that this paper will serve as a basis for leading such a process, followed by studies on the utilization of the original form of Baekje culture.

*Key Words:* Baekje pattern(백제문양), Pyojihwajomoonkeum(표지화조문금), storyteller clothing(스토리텔러복), Baekje cultural area(백제문화권), culture contents(문화콘텐츠)

---

<sup>†</sup> Corresponding author ; Sun-Jung Ra  
Tel. +82-41-850-8428  
E-mail : ralra98@kongju.ac.kr

## I. 서론

문양은 인류가 문자를 사용하기 이전부터 이미 사용되고 있던 언어 대신의 기록이다. 종교적 의미와 더불어 조형적 아름다움 등 다양한 의미를 담고 오랜 기간에 걸쳐 변화·발전된 산물이라 할 수 있다. 문양이 주는 조형적 이미지는 의사소통을 통해 전달되는 방식보다 더욱 강렬한 힘을 가진다. 문양은 인간이 아름답게 꾸미고자 하는 장식적 본능에서 출발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전통문양을 통해 역사와 선조들의 의식세계를 읽어 낼 수 있는 것이다. 현재 곳곳에는 수많은 문양들이 넘쳐나고 있지만, 문양의 활용도 측면에 주안점을 두어 전통문양 본래의 의미와 상징을 읽어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백제 시대의 문양은 봉황(鳳凰)·연화(軟化)·당초(唐草)·초화(草花)·기린(麒麟)·귀면(鬼面)·귀갑(龜甲)·운문(雲紋)·와권(渦券)·화염(火焰) 등 다양하다. 특히 정창원에 소장된 ‘표지화조문금(縹地花鳥紋錦)’은 백제인이 직접 짠 문양으로 그 상징적인 의미는 괄목할만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물자료로 증거하고 있는 ‘표지화조문금’을 토대로 그 의미와 가치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백제역사유적지구 등 백제문화권 내 문화관광해설사, 관광안내사 등이 관광객 안내 및 유적 해설시 착용할 수 있는 스토리텔러복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백제문양 표지화조문금이 상징하고 있는 의미와 스토리텔러복으로의 활용 가치를 점검해봄으로써 백제문화권 내 적용 범위와 역할을 명확히 한다. 다음으로 백제복식의 원형을 기준으로 한 남녀 스토리텔러복을 제안한다.

연구 방법은 문헌과 고고자료를 바탕으로 한 이론적 연구와 직물 제직 및 의상 제작의 실증적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표지화조문금의 특성과 백제복식의 원형을 이해하고, 의상 제작을 통한 패션문화콘텐츠로의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함이다. 문헌과 물질자료를 바탕으로 나타난 복식의 원형을 살펴보고, 원형에 맞추어 스토리텔러복을 제안한다. 원사의 제직부터 염색, 가공 등 공정과정이 백제시대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기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가능

한 수용할 수 있는 공정 과정을 최대한 반영하여 진행하고자 하며, 이를 바탕으로 직조된 직물을 가지고 스토리텔러복을 제작하여 제안할 것이다.

백제문화권내 역사적 가치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다 역사적 요소에 기반한 백제 복식을 현대화하여 제안한다면 백제역사문화권만의 차별화된 콘텐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지역과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한 공무원·교복·원복 등으로의 활용 역시 기대할 수 있다.

## II. 이론적 검토

### 1. 표지화조문금의 이해와 가치

‘표지화조문금(縹地花鳥紋錦)’은 연화문과 당초문, 화조문 등이 조화롭게 배열되어 있는 문양이다. 백제시대에 주로 나타나는 문양에는 인동당초문·연화문·봉황문·운문 등이 있는데, 이 문양은 중국 남조와의 긴밀한 교류관계로 인하여 그 시대에 성행하던 형태와 분위기가 비슷한 형식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당시 불교를 중시한 시대적 배경이 문양에 반영되어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불교를 상징하는 꽃인 연꽃을 모티브로 한 연화문 역시 남조의 영향을 크게 받아 남조 분위기를 자아내는 문양을 백제 와전의 문양으로 많이 사용하였다. 향후 백제말기의 익산 출토 와전과 부여 외리 출토 문전 등에 나타난 연화문은 기존의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아 나타났던 문양의 형태보다 매우 발전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 문양은 기존의 것을 바탕으로 백제적인 것을 창조하고자 하는 백제만의 고유성이 드러난다. 즉, 백제의 독자적인 양식으로 발전되었다.

일본 정창원에 소장된 표지화조문금 견직물에 ‘가모군(蒲生郡)’이라는 흑서(黑書)가 쓰여 있다. 이 시카현 가모군 일대는 덴지 천황대(662-671년) 백제 멸망 이후 백제 주민들이 대거 이주하여 터를 잡아 삶을 영위했던 지역이다(이도화, 1997).

백제는 4세기에 발달된 양잠법과 직조법을 일본으로 전래하기 시작한다. 467년에 비로소 일본에 이주해 온 백제와 중국 직동들에게 직조기술을 일본 직공들에게 전수하게 하고 그의 대가로

〈표 1〉 표지화조문금의 이해

| 원형                                                                                                             | 제작국 | 시기    | 소장처    | 주색    |
|----------------------------------------------------------------------------------------------------------------|-----|-------|--------|-------|
|  <p>(출처:中國職繡服飾全集1, p.157)</p> | 백제  | 6~7세기 | 일본 정창원 | 자비녹황백 |

많은 토기와 벼슬을 내려준다. 그 이후 일본의 황금시대라 불리는 나라왕조 때 당나라와 친교를 통하여 다양한 직조기술과 염색기술을 습득하게 된다(이남석, 2004). 다시 말하면 일본은 8세기에 도 문직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주변국가의 도움을 받았던 나라인 것이다. 백제인은 목간이나 직물 등에 직조 기술자·지역·상황·내용 등을 표식으로 기록했는데, 이러한 방식을 표지화조문금에도 적용하여 표식을 남긴 것으로 여겨진다. 비록 백제는 사라졌지만 자구책으로 일본행을 선택하여 터를 잡았던 곳에서도 검소하나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나 사치스럽지 않은 ‘검이불루 화이불치(儉而不陋 華而不侈)’로 백제의 정신과 백제 직조 기술을 우수성을 남기고자 했던 의지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일본의 역사상 가장 황금시대라 불리며 당나라와 친교를 유지했던 나라왕조(A.D. 710-785) 시대에 비로소 당으로부터 다양한 직조기술과 염색기술을 습득하였다. 즉, 일본은 8세기에도 문직기를 사용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때문에 일본에 소장되어있는 천년이상 된 직물은 일본에서 직조된 물품이 아닌 대부분 수입되거나 하사된 물품이다. 이러한 사실로 말미암아 일본 정창원에 소장된 표지화조문금은 일본인에 의해서가 아닌 백제인이 직접 직조한 백제의 직물, 백제 고유의 문양이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 2. 스토리텔러북의 개념과 의의

스토리텔러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에 이야기체, 즉 스토리텔링을 더하여 보다 재미있고 쉬운 이야기를 대중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으로 다양한 인문 콘텐츠를 생산해내는 중개역할을 하고 있

다. 현재 우리 사회 곳곳에서 스토리텔러를 필요로 하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스토리텔러는 보다 쉽고 재미있게 이야기를 전달하여 어떠한 사실·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이를 시도하게 된 계기나 방법·의의, 과정이나 가능성 등을 생생하게 살펴볼 수 있게 전달하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한다.

현재 백제문화권 내 다양한 영역에서 스토리텔러의 활동을 찾아볼 수 있다. 역사문화유적지구 내 문화관광해설사·관광안내사 등을 비롯하여, 국립박물관·시청·역사문화원 등 공공기관 내 방문객과 소통하는 담당자 역시 그러하다.

우리는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거나 집단을 나타내고자 할 때 등 공공의 목적으로 유니폼을 착용한다. 실제 착용자를 지각하는데 있어 중요한 단서로 작용하며, 착용자의 정보를 전달하는 상징적 역할을 하는 유니폼은 자유복과 달리 목적하고자 하는 것에 따라 특정한 형태와 필요한 장식, 기능을 갖추고 있는 것에 특징이 있다. 집단에 소속되어 있을 때 착용하여야 하는 의복으로 약간의 강제성을 띠기도 한다. 유니폼을 착용한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단체에 소속되어 있다는 소속감을 갖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집단에서 요구하는 방향으로 단체정신을 형성하게 하고, 소속된 집단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여 행동의 제약을 받기도 한다. 스토리텔러가 착용하는 유니폼을 스토리텔러북이라 명명하며, 스토리텔러북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상징성이다. 백제의 역사문화를 소개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스토리텔러는 그 업무에 적합한 형태와 외관을 가질 수 있도록 정해야 할 것이다. 백제의 역사문화를 확실히 인식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되므로 상징성은 스토리텔러북에 있

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두 번째 기능성이다. 의복을 착용하고 백제역사유적지구를 방문하는 관광객과 함께 실내외를 오가며 활동하는 동안 편안하고, 업무에 안정성이 있어야 한다. 스토리텔러복의 의복압과 쾌적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세 번째 심미성이다. 아름다움은 패션의 경향, 선호를 반영하는 부분으로 착용자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바라보는 제 3자에게도 즐거움을 줄 수 있다. 스토리텔러복에 표현되는 심미성은 개인적 만족과 함께 소속된 집단을 나타냄으로써 개인중심이 아닌 소속기관 중심이 되는 것이다. 네 번째 경제성이다. 비교적 가격이 저렴해야 하며 내구성이 좋아 손질이 용이해야 한다. 또한 세탁 및 보관이 간편해야 하는 등의 경제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즉, 스토리텔러복은 상징성·기능성·심미성·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너무 복잡하지 않고, 조화와 균형, 통일감을 갖추어 제작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 Ⅲ. 백제문화권 스토리텔러복 제안

#### 1. 디자인 컨셉 설정

백제문화권 내에서 착용하는 스토리텔러복의 원형은 백제 복식에 근거하여 디자인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였다. 착용되는 복식은 개인 또는 지역, 단체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새로운 문화로써 활용될 수 있으며, 역사문화와 전통을 이해하는데 촉매제가 될 수 있는 문화콘텐츠 자원으로 주목받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백제문화권 내 방문객과 접촉하는 업무를 담당

하는 스토리텔러의 공무적 성격을 고려하여 백제의 관인이 착용한 관인복과 일반 관광객과의 친밀성을 고려하여 서민들의 착용한 일반복을 기준으로 참고하여 디자인 컨셉을 설정하였다.

백제시대 관련 문헌자료와 고고자료에 나타난 공무를 위해 착용된 관인복은 급에 따라 자(紫)·비(緋)·청(靑)으로 복색을 나누고 6품 이상은 은 화관식을 착용함으로써 세분화시키고 있다. 대의 색을 자(紫)·조(早)·적(赤)·청(靑)·황(黃)·백(白) 순으로 관급에 따라 차이를 두어 구별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으로 신분차를 표현하였다. 권위와 지위를 상징하는 신분계급의 표지로 포의 색상을 달리하여 관등을 구분하였다는 점은 포(袍) 안에 유(襦)를 착용하였음을 유추하게 한다. 저고리와 포 등 상의를 착용하고, 큰소매로 이루어진 저고리(大袖衫)의 기록 역시 확인된다. 폭이 넓은 대구고와 대수 등의 구조와 깃·도련·수구·바지부리에 선 장식이 보인다. 직령합임(直領合衿)과 직령교임(直領交衿) 등의 다양한 여밈 형태에 대를 착용하였다.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착용한 일반복은 『구당서』와 『신당서』에서 그 내용이 확인되며, 고고자료 가운데 유리제등자상에서 그 모습을 살필 수 있다. 유, 고를 중심으로 한 백제복식의 기본 구조를 보이며, 대를 맨 형태의 착장방식이 확인된다. 저고리는 엉덩이를 덮는 길이의 장유와 수구가 약간 넓은 통수, 바지는 바지통이 넓은 대구고, 바지부리를 오므린 궁고의 형태가 보인다. “서민은 비색과 자색 옷을 입지 못한다.”의 『구당서』와 『신당서』 기록으로 일반인의 복색에 대한 금제 규정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선화봉사고려도경』에 이르기를 “삼한의 여자는 무늬 없는 저(苧)”

〈표 2〉 스토리텔러복의 구조와 형태

| 복식구조     |          | 근거자료                                                                                                     |                                                                                                            | 형태        |         |
|----------|----------|----------------------------------------------------------------------------------------------------------|------------------------------------------------------------------------------------------------------------|-----------|---------|
| 상의       | 유<br>(襦) | <br>複衫<br>不得緋紫<br>禁綠紫 | <br>(출처: 국립공주박물관, p.47) | 소매        | 통수      |
|          | 하의       |                                                                                                          |                                                                                                            | 고<br>(袴)  | 깃       |
| 상<br>(裳) |          |                                                                                                          |                                                                                                            | 선장식       | 깃·수구·도련 |
|          | 여밈       |                                                                                                          |                                                                                                            | 대, 좌·우·합임 |         |
|          |          | 바지                                                                                                       | 대구고                                                                                                        |           |         |
|          |          | 선장식                                                                                                      | 바지부리에 넓은 선                                                                                                 |           |         |
|          |          | 치마                                                                                                       | 넓은 치마폭                                                                                                     |           |         |
|          |          | 선장식                                                                                                      | 밑단에 넓은 선                                                                                                   |           |         |

로 만든 황색 치마를 착용했으며, 염색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다.”고 기록한 바와 같이 마한을 근저로 하여 자리를 잡은 백제에서도 이의 기록과 유사함을 나타내고 있다. 직물 재료로 사용되었던 저는 저마를 칭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실제 저마는 누런색을 띠고 있다. 기록에 보이는 황색은 저마의 천연색을 말하는 것으로 염색공정이나 가공처리 없이 생사 자체를 직조한 직물을 가지고 옷을 제작하여 입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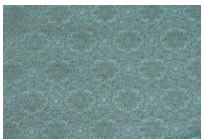


이상에서 보이는 백제복식의 원형을 바탕으로 한 스토리텔러복의 기본 컨셉은 백제문양인 표지화조문금에 나타난 색상을 기준으로 하고 남자는 유와 고의 구조를 여자는 유와 상의 구조를 기본으로 하였다. 소매 폭이 넓은 통수, 엉덩이를 덮을 정도의 장유와 폭이 넓은 대고, 상의 형태에 선장식과 대를 매는 착장방식을 선택하였다. 이의 내용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이 <표 2>로 정리될 수 있다.

<표 3> 직조된 직물의 특성

| 구 분  | 특 성                                                                           |                                                  |
|------|-------------------------------------------------------------------------------|--------------------------------------------------|
| 경사사종 | Rayon Like 75/36 sizing (개질 Polyester)                                        |                                                  |
| 위사사종 | LF50S (Tencel)                                                                |                                                  |
| 경사밀도 | 168본/Inch (총본수 : 10,960본)                                                     |                                                  |
| 위사밀도 | 150T/Inch                                                                     |                                                  |
| 경사중량 | $75^D \times 10,960\text{본} \times 1.12 \times 0.0001016 = 93.5\text{g/yd}$   |                                                  |
| 위사중량 | $114^D \times 68'' \times 150T \times 1.12 \times 0.0001016 = 132\text{g/yd}$ |                                                  |
| 전처리  | 150℃ - 35m/min,                                                               |                                                  |
| 염색   | 경사                                                                            | Polyester Dyeing (Disperse Dyes) : 120℃ x 60min, |
|      | 위사                                                                            | Tencel Dyeing (Reactive Dyes) : 60℃ x 120min,    |
| 건조   | Pre-Dry 150℃                                                                  |                                                  |
| 가공   | Soft Type Polyurethane Resin                                                  |                                                  |

\* 직조기관 : 현대직물

<표 4> 스토리텔러복 제작을 위해 직조된 직물

|   | 상의                                                                                  | 하의                                                                                  | 선 장식                                                                                 |
|---|-------------------------------------------------------------------------------------|-------------------------------------------------------------------------------------|--------------------------------------------------------------------------------------|
| 남 |  |  |  |
| 여 |  |  |  |

〈표 5〉 제안된 스토리텔러복 예시

|   | 도식화                                                                               |                                                                                   | 제작의상                                                                              |                                                                                    |                                                                                     |
|---|-----------------------------------------------------------------------------------|-----------------------------------------------------------------------------------|-----------------------------------------------------------------------------------|------------------------------------------------------------------------------------|-------------------------------------------------------------------------------------|
|   | 상의                                                                                | 하의                                                                                | 상의                                                                                | 하의                                                                                 | 착장예시                                                                                |
| 남 |  |  |  |  |  |
| 여 |  |  |  |  |  |

로 처리하였다. 기본 원형에 사용되는 직물은 문직, 선장식에 사용되는 직물은 금직으로 직조되었으며, 이중직으로 된 컬러웨이로 의상디자이너(디자인등록 제30-0608610)하였다. 착용자의 편의성과 쾌적함 등 기능성을 고려하여 건조처리와 가공처리를 진행하였다. 원사 및 전처리·염색·건조·가공의 조건은 〈표 3〉과 같으며, 직조된 직물은 〈표 4〉로 정리될 수 있다.

직조된 직물을 바탕으로 제작하고자 하는 스토리텔러복을 제작하였다. 여밈의 방향은 우임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백제시대 여밈이 좌임·우임·함임 등 상황과 편의에 따라 자유롭게 착장하였던 점을 바탕으로 교임과 함임 모두 가능하게 착장할 수 있도록 대를 고정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연출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제안된 스토리텔러복은 저고리와 바지의 남성용과 저고리와 치마의 여성용으로 총 4점이 제작되었다. 문헌과 고고자료를 바탕으로 나타난 백제복식의 원형을 기준으로 하여 제작되었는데, 상의는 엉덩이를 덮을 정도의 장유의 길이로 소매는 통수, 깃과 수구, 도련에 선 장식을 대었다. 하의의 길이는 발목에 이르는 길이로 통이 넓은 대구고 형태를 나타내었으며, 밑단에 선 장식을 대었다. 그 형태와 착장예시는 〈표 5〉와 같다.

#### IV. 결론

복식은 각각의 요소의 결합으로 그 시대의 문화를 나타내는 산물이다. 그러므로 시대 전반의 기원과 원류에 대한 고찰이 선행되어야 한다. 백제문양 표지화조문금은 일본 정창원에 소장된 백제 고유의 문화가 담긴 직물로, 연화문·당초문·화조문 등이 조화롭게 배열되어 있어 중국 남조와의 긴밀한 교류관계를 엿볼 수 있으며, 당시 성행하던 형태와 분위기를 파악하기에 좋은 문양으로 활용된다. 여러 증거를 통해 일본인에 의해 직조된 것이 아닌 백제인이 직접 직조한 직물이며 백제 고유의 문양임이 확인되었다. 표지화조문금의 원형 고증과 복원에 가치를 두고 이를 활용한 현대적 감각에 맞는 스토리텔러복의 한 형태로 제안하였다.

표지화조문금의 색상과 문양을 그대로 적용하여 하나의 모티브를 3cm의 원리핏을 기준으로 상하좌우 연속 반복시켜 디자인하고 자카드로 제작하였다. 직조된 원단은 건조와 가공과정을 거친 후 저고리와 바지로 이루어진 남성복과 저고리와 치마로 이루어진 여성복 등 총 4점의 스토리텔러복을 제작하였다. 엉덩이를 덮을 정도의 장유와 통수로 이루어진 상의의 깃, 수구, 도련에 선 장

식을 대었고, 대구고로 이루어진 폭이 넓은 바짓 부리에 선 장식을 대었다.

전통문화의 원형을 활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적 요소를 지닌 원래의 재료를 가공함으로써 보다 효용성 있는 큰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전통문화의 원형 그대로의 고증작업과 함께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현대화 작업이 수반되어야 한다. 백제의복을 현대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현대인의 감각에 맞아야 하며, 편리성 또한 갖추어야 한다. 이미 밝혀진 백제적 요소를 적용하여 제작된 스토리텔러복은 현대적 감각에 최적화되었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원형의 고증에 초점을 두어 지역문화 특수성을 갖추고자 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하였으며, 본 연구가 이러한 과정을 이끌어 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더불어 백제 문화의 원형을 살려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활용 연구가 계속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국립공주박물관. (2007). *국립공주박물관*. 서울: 통천문화사.
- 라선정. (2016). 백제역사유적지구의 활성화를 위한 복식 재현 연구. *인문콘텐츠*, 41, 243-262.
- 민길자. (2000). *한국 전통직물사 연구*. 서울: 한림원.
- 박남성. (2002). *직물의 역사*. 서울: 예경.
- 심연옥. (2006). *한국직물문양 이천년*. 서울: 고대직물연구서.
- 이남석. (2004). *백제 문화의 특성 연구*. 서울: 서경.
- 이도학. (1997). *새로 쓰는 백제사*. 서울: 푸른 역사.
- 이형구. (2004). *한국고대문화의 비밀*. 서울: 김영사.
- 조효순. (1989). *복식*. 서울: 대원사.
- 최재석. (2004). *正倉院 소장품과 통일신라*. 서울: 일지사.
- 新華書店天津發行所. (2004). *中國職繡服飾全集 1*. 中國: 天津人民美術出版社.
- 『三國史記』.
- 『三國志』. 『後漢書』. 『魏書』. 『梁書』. 『南史』.
- 『周書』. 『北史』. 『隋書』. 『舊唐書』. 『新唐書』.